

자료제공 : 2024. 2. 19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

공공의료추진반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보건의료정책과장	이병철	02-2133-7505
보건정책팀장	김 신	02-2133-7507
의약무팀장	이정목	02-2133-7531
응급의료팀장	함현진	02-2133-7536
병원관리팀	최숙영	02-2133-9301
공공의료추진반장	김병철	02-2133-9240
공공의료정책팀장	차동윤	02-2133-9231
관련 누리집 (메뉴)		

## 서울시,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·대응 나서

-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·운영 등 ‘비상진료대책’ 수립
- 집단행동 현실화될 경우 중증 응급실 등 필수의료체계 중심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
- 서울 시립병원, 보건소 등 진료시간 확대, 자치구-정부 협력체계 구축 신속 대응

- 의대정원 증원, 필수의료패키지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공백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‘비상진료대책’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.
- 시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‘경계’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<서울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(본부장: 행정1부시장)>를 구성했다.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‘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’을 운영 중이며, 의료계 상황과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.

-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어 위기경보가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될 경우,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, 보건소 연장 진료로 대응하고,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이다.

### 〈전공의 파업 등 ‘심각’단계 조치계획〉

- **(공공의료기관)**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과,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. 또한 시립병원 4개소(서울의료원, 보라매병원, 동부병원, 서남병원)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유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.
- **(보건소)**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,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며,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에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. 아울러, 전공의가 근무 중인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근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
- **(응급의료기관)** 시는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  -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문 여는 병·의원 정보를 수집하여 ‘문 여는 병·의원’에 대한 정보를 ‘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’에서 제공할 예정이다. 전화는 국번없이 120(다산콜센터), 119(구급상황관리센터)로 연락하면 되며, 모바일 앱 ‘응급의료정보제공(e-gen)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
- 서울시는 개원의, 수련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.
  
-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서울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,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 공의,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.”고 말했다.